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,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

- 1세 미만 영아 백일해 감염 사망,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
- '24.11.2.기준 백일해 (의사)환자 30,332명, 소아청소년 연령대 중심 전국적 유행 지속
- 적기 접종과 더불어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, 영유아 돌보미(부모, 조부모 등) 등 성인 예방접종도 중요

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(생후 2개월 미만)가 발생함에 따라,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, 도거 가족(부모, 형제, 조부모 등)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.

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1주 총 30,332명의 환자(의사환자 포함)가 신고되었으며, 7-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(11.2.기준).

2학기를 맞아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백일해 등 동절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백일해 표준예방접종 일정 및 백신 종류 >

• 백일해 표준예방접종 일정

구 분		표준접종시기	다음접종 최소간격	접종백신
기초 접종	1차	생후 2개월	4주	DTaP(DTaP-IPV, DTaP-IPV/Hib)
	2차	생후 4개월		
	3차	생후 6개월	6개월	
추가 접종	4차	생후 15~18개월		DTaP
	5차	4~6세	DTaP(DTaP-IPV)	
	6차	11~12세		
	7차 이후	매 10년 마다	5년	Tdap 또는 Td*

• 11세 이후 접종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하며, 가능한 한 11-12세에 Tdap으로 접종한다.

※ Tdap : 파상풍(T), 디프테리아(d), 백일해(acellular Pertussis) 항원 포함 백신
 Td : 파상풍(T), 디프테리아(d) 항원 포함 백신, 백일해 항원은 없음

◀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▶

- 기침예절 실천
 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 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 -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
 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 - 외출 후, 식사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·재채기 후, 용변 후 등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-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
 -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
 - 학교,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
-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



인플루엔자

▶ 개요

▶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



▶ 감염경로

▶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로 전파

▶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~7일까지 전파



▶ 증상

▶ 고열(38~40°C), 마른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, 피로감, 쇠약감,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

▶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, 영유아, 만성질환자, 임신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 악화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



▶ 예방법

▶ 예방접종

▶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

▶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

▶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

▶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은 청소와 소독하기



2024년 11월 12일

백 산 중 학 교 

2022.12.9

질병관리청

호흡기질환, 어떻게 예방할 건가요!?

기침할 땐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씻기

• 기침예절 실천 네 가지 수칙 •



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
입과 코 가리기!



기침한 후에는 반드시
올바른 손씻기 실천!



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
마스크 착용하기!



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
쓰레기통에 버리기!

올바른 기침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 주세요!